

# 민평당-미래당, 호남조직 인선 비상

### 민평, 광주 4곳 지역위 인선 사무실·집기 새로 마련

### 미래, 광주·전남 사고 지역위원회 11곳 재정비 시급

민주평화당과 미래당이 광주·전남 지역위원회를 재정비해야 하는 등 국민의당 분열에 따른 호남조직 인선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 인선을 마무리해야 하고, 풀뿌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지역위원회 선정도 마쳐야 한다.

특히 국민의당 탈당 러시 속에서 시·도당 당직자들의 행보도 엇갈리고 있고, 두 집 살림에 따른 새 사무실을 알아봐야 하는 등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또한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 입후보자를 뽑은 시간 안에 찾아야 하는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인 민평당은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창당대회를 치르고 시도조직 구성을 본격화했다. 시당 위원장에는 최경환(광주 북구)의원을, 도당 위원장에는 이용주(여수 갑)의원을 선출하고 사무처장, 조직국장, 정책실장 선임에 나섰다. 기존 국민의당 당사나 인력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만큼 사무실과 집기 등을 새로 마련해야 하고 당본간 최경환 의원사무실을 시당위원회 사무실로 쓰기로 했다.

또 지방선거 최전선을 담당할 지역위원회 구성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창당대회 직후에도 지역조직 구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평당 관계자는 “중앙당 창당 작업이 마무리되면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구성도 서둘러 마칠 방침이며, 시도당 조직이 정비되면 차례대로 지역위원회 인선도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평당 광주시당의 경우 북갑·북을·동남갑·서구를 등은 기존 조직이 대부분 민평당으로 흡수될 전망이다. 다만 광주지역 4개 지역위원회는 새로 인선을 해야 한다. 또 옛 국민의당 광주시당의 당직자 상당수가 탈당을 하지 않고 미래당행을 결정할 상태여서 민평당은 시당 당직자 인선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당 통합찬성파인 미래당의 사정도 비슷하다. 기존 국민의당 시도당 당사와 인력을 대부분 이어받지만 민평당으로 이동한 인력이 있어 조직을 새로 꾸려야 한다. 실제, 광주시당 주요 요직 중 2~3명이 빠져나갔고 일부 주요 간부 또한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당직을 사퇴해 새롭게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

미래당 광주시당은 현재 사고 지역위원회로 광주지역 북갑·북을·동남갑·서구를 등 전체 8개 지역위원회 중 4개의 지역위원회 인선에 나섰다. 전남도당도 목포, 여수갑, 광양·곡성·구

례, 함평·영광·담양·장성, 영암·무안·신안, 해남·완도·진도, 고흥·보성·장흥·강진 등 10개 지역위원회 중 7곳을 새로 뽑기로 했다.

미래당 관계자는 “생각보다 당직자들의 탈당 규모가 크지 않아 시·도당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각 지역위원회 인선이 문제다”면서 “당장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지역위원회의 조직을 서둘러 정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미소 짓는 유승민·안철수 대표

당 통합을 앞둔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오른쪽)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6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찾아 연구원 개발 기술 체험관을 둘러보며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남도 관광기반시설 확충 1179억 투입

### 관광객 5000만명 시대 실현 7개 분야 151개 사업 추진

전남도가 올해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1179억원을 투입한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전남으로 관광객 5000만명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이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국비 675억원을 포함해 모두 1179억원을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941억원)보다 25.3%가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 관광지 개발, 문화관광자원 개발, 생태녹색자원 개발 등 7개 분야 151개 사업을 추진한다.

관광지 개발은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13억원), 보성 울포해수욕장 관광지 조성(12억원), 구례 지리산온천 관광지 개발(11억원) 등 6개 관광지 개발에 52억원을 투입한다.

82개 사업 884억원을 투자하는 문화관광자원 개발은 영암 한국 트로트가요센터 건립(42억원), 곡성 섬진강변 관광명소화(31억원)와 로즈카카오 체험관 건립(25억원), 목포 황해교류역사관 건립(3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은 무안 노을길 관광테마공원 조성(16억원), 장성호 생태탐방로 조성(15억원), 함평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13억원), 구례 간문천 수달생태탐방로 조성(12억원) 등이 있고,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은 영암 영산호 마실길 조성(13억원), 구례 돌레길 쉼터 조성(11억원), 목포 고하도 해식애(해안절벽) 해안길 조성(10억원) 등이다.

또 10억원을 투자해 국민여가캠핑장 2곳을 조성하고, 여수 조·명연합수군 테마 관광자원 개발·화순 주자묘 기반 정비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연지역 정비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시, 오늘 서울서 친환경자동차산업 투자유치 설명회

광주시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친환경자동차산업, 빛그린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수도권에서 열고 본격적인 기업 유치에 나선다.

시는 7일 오전 11시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100여 명의 국내외 친환경자동차산업 관련 기업인들을 초청한 가운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친환경자동차산업, 자동차 전자부품 등 관련 분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광주의 전략산업 등 주요 경제 육성 시책과 지역산업 여건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핵심적인 도시형 최첨단 산업단지,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집적화, 우수한 연구인력,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비롯한 안정된 노사문화 정착 등 광주의 투자 매력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홍보한다.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3030억원을 투입해 빛그린 국가산단을 자동차전용산단으로 조성하고 선도기술지원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친환경자동차산업을 집중 구축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시는 또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미래형 전장부품산업 생산기반과 자율주행 커넥티드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산업벨리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노사파트너십 형성과 적정임금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통합형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하는 등 전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수도권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해 1229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서대석 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 서구청장 출마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서대석(사진) 원장은 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서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후보경선을 준비 중인 서 원장은 “사람사는 세상”을 서구에서 실현해보겠다는 꿈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왔다”면서 “서구에는 광주의 행정·금융·경제·사회·문화 등 거의 모든 기능이 집중돼 있지만 항상 다른 구에 비해 발전이 뒤쳐졌다. 미래를 위한 혁신보다는 관료주의 행정에 치우쳐 지역발전이 더디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저는 2010년 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000표 차이로 아쉽게 졌고 2012년 서구를 국회의선거구는 아권연대에 따라 통합진보당에 후보를 양보한 뼈아픈 기억도 있다”며 “이제는 우리도 바뀌어야 하고, 과감한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단체장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김성현 전 민주당 시당 사무처장 서구청장 출마

김성현(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은 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 서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후보경선을 준비 중인 김 전 사무처장은 “오랜 기간 서구발전을 위해 연구했고 실천했다”며 “더 큰 혁신을 위해 서구청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활발하고 꾸준한 정당 활동을 통해 국회와 정부의 많은 인사와 교류했다”며 “가장 살고 싶은 서구를 만드는 데 이들의 협력이 끝내줬다”면서 “기존의 고전적인 선거방식이 아닌 희망·정책·경청이 있는 선거, 인원동원·상대비방·선거 캠프가 없는 선거로 서구에서 선거혁명을 함께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박균조 전 전남도 국장 담양군수 출마 선언

박균조(60·사진) 전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이 지난 5일 담양문화회관에서 6·13지방선거 담양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의 정치가 아닌 행정”이라며 “지방자치를 공부하고 30년간 현장을 지킨 준비된 군수”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군민이 행복한 ‘명품담양’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힌 뒤 “명품담양은 행복담양과 부자담양을 말하는 것으로 주민이 주인인 시대, 소득이 높아 청년이 찾아오는 담양 건설에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국장은 광주고와 조선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자치부 재해보상팀장, 강진군수 권한대행, 전남도공무원교육원장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김동찬 시의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립 원안대로”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원은 6일 “도시철도 2호선 건립을 원안대로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6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이미 수년간 논의 과정을 거쳤고 윤장현 시장 취임 후 2년이란 속의시간도 가졌고 시민의견을 반영해 원안건설을 최종 결정했다”면서 “도시철도 2호선은 원안대로 건설해야 하며 앞으로 행정의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종식하고 광주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에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토론 하자는 얘기도 하지만 광주의 경우는 다르다”며 “탈원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지할 사업은 달리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oticon PEOPLE FIRST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